



30여년을 산업용 칼 국산화에 전념

독터나이프 성능 우수하게 개발

탁 명 준 / 동명정밀(유) 회장

10년동안 도루코의 기술상무로 재직하다 당시 칼 종류가 대부분 수입되는 것에 자극을 받은 탁명준 현 동명정밀(유) 회장은 이 분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칼의 재료를 생산하는 삼성특수강(주)을 설립했다.



이 때부터 그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개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을 바꾸게 했다.

탁 회장은 지난 70년 각종 소형 스프링 개발, 72년 벽시계 스프링 개발, 75년 카본스틸 강대 열처리방법 개발, 83년 자동차 안전벨트 스프링 개발, 85년 목재용 Band Saw 개발, 97년 텔레비전 브라운관용 사도마스크 스프링 개발, 98년 인쇄용 Doctor Blades 개발 등 외국제품의 수입대체품 개발에만 몰두해왔다.

특히 자동차의 안전벨트 스프링 개발은 독일의 동종제품 업체를 자극, 저가 덤핑공세와 국내업체들의 외면으로 생산설비와 판권을 모두 넘겨줘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현재 자동차 업체에서 다시 생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이제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개발 당시 국내 업체를 발전시키겠다는 대기업들의 생각만 있었어도 이제와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게 탁 회장의 회상이다.

지난 98년 개발에 성공하여 최근 완벽하게 보완한 인쇄용 독터 블레이드도 외국 제품보다

성능면에서 뛰어나지만 사용업체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탁 회장은 직접 시험기기를 갖고 다니며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성능을 입증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만연한 외산제품에 대한 선호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다.

그나마 기업규모가 작고 최고 책임자가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업체의 구매 담당자들은 시험 자체도 인정하려들지 않아 좋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품질관리팀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정확한 판단으로 성능을 인정하지만 기존 거래선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는 소극적이라는 게 탁 회장이 경험한 현실이다.

“가격이 싸고 성능이 우수한데도 국산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탁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국산 개발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포장분야에 뛰어든 것은 불과 2~3년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3~4개의 아이템을 더 개발하고 있을 만큼 지식에서는 상당하다.

그의 손에서는 참고 서적이 떨어질 날이 없다고 한다. 많이 알아야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포장분야 가운데 인쇄기에 사용되는 칼날을 개발 완료하겠다는 탁 회장은 7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이 유일한 취미생활 장소라 한다.

“그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욕심내지 않았습시다. 내가 개발한 제품이 우리 나라에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라며 웃는 탁 회장은 “같은 업계라도 기술인력을 무분별하게 스카웃하고 남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여 출혈경쟁하는 비도덕적인 면은 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탁 회장이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산업제품

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검토를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을 운영해 줄 것과 현장 실무 구매담당자들의 국가경제, 국내 기업을 생각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에 노력하는 사람도 경쟁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해야지 품질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써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품간에도 기술력이 우수해야 유저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는 아주 뛰어난 품질을 유지해야 유저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탁 회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료들을 수집해 연구 분석해야지 남이 해놓은 것을 베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했다.

연구에 대한 정열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연구에만 힘을 쏟아 작은 분야이지만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 외로운 노력을 펼치고 있는 탁 회장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鎮〉